

# 군에서 톱밥·종돈구입자 보조받는 경북 고령지부

취재: 정재은



●양돈협회 고령지부 사무실 앞. 우측부터 권중철 지부장, 박현주 간사, 류윤희 총무.

경북 고령지부(권중철 지부장, 48세)는 지난 2002년 2월 6일 지부설립 승인이래 1년 6개월 동안 짧은 시간에 다양한 공동구매 및 공동출하 사업과 군과 연계한 활발한 보조사업으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고 있다.

모든 회원들은 품질이 뛰어난 규격돈을 고령 축협 다산 육가공공장을 통해 전부 공동출하 하고 있다.

사료첨가제나 생균제, 각종 약품 등이 필요한 시기에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공동구매를 한다. 또한 환경개선 사업과 종돈갱신 사업의 일환으로 톱밥 공급과 종돈구입시 군으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군이나 축협과의 연계를 통해 방역 및 소독활동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다. 월례회를 통해 회원들과 지부운영 사항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함께 나누며, 무료시식회와 각종 친목행사로 유대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고령지부는 회원들간에 단합된 모습과 적극적인 참여로 더 나은 지부로 발전하고 있으며, 군 등의 관련기관과의 협조가 잘 되고 있어 명실상부 지역 양돈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다.

## 고령지역 양돈산업의 구심체 역할

2002년 1월 22일 고령지부가 설립되었고, 그 해 2월 6일 지부승인을 받았다. 권중철 지부장은 “경북지역 양돈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고령지역에는 대구경북양돈조합 차원의 양돈선진회, 고령축협의 양돈축산계가 있었지만 무임승차자 없이 양돈을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양돈협회 설립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이곳 고령지역은 73농가가 12만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다. 이중 29농가가 지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전체사육두수의 75% 수준인 9만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다. 1만두 규모 이상 3농가, 6,000두 규모 1농가, 2,000~5,000두 규모 5농가 등을 비롯해 1,000두 이상의 대규모 농가는 대부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고령지부의 역사는 짧지만, 초대 권중철 지부장과 이상룡 부지부장, 이기홍 전 총무, 류윤희 총무, 박성용 감사를 중심으로 작은 일에서부터 모든 일을 푼뜰 뭉쳐 서로 함께 하는 지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현재 지부장 1명, 부지부장 1명, 총무 1명, 감사 1명, 운영위원 5

명을 포함해 9명의 임원들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 공동출하 및 각종 공동구매 사업으로 이익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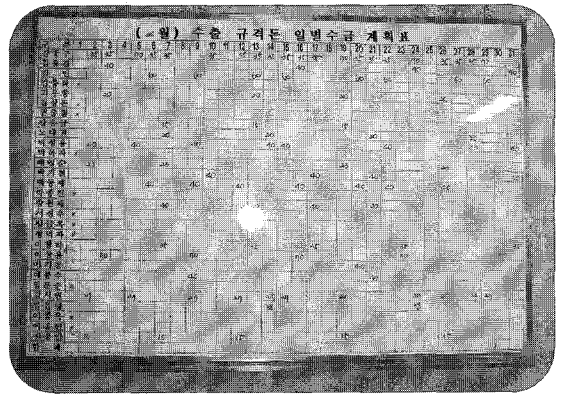
고령지부는 공동출하와 공동구매 사업으로 회원들이 양돈을 해 나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

공동출하 사업은 전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회원들이 키운 돼지는 '품'자 마크를 받은 가야그린포크로 고령 축협 다산 육가공공장을 통해 공동출하되고 있다. 110~120kg으로 규격을 맞춘 브랜드화된 제품으로 공무원과 학교 급식용, 일반 매장 등으로 출하한다. 권 지부장은 "99년까지는 수출을 목표로 이루어졌지만 2000년 4월 이후 수출이 안되어 아쉬운 면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고령지부는 질병 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시기에 사료첨가제, 생균제, 약품 등을 공동구매한다. 회원들에게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며, 지부는 5%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권 지부장은 "단미기, 소화기, 주사



▲고령지부 권중철 지부장



▲고령축협 다산 육가공공장을 통한 공동출하 계획표

기처럼 간단한 소모품은 명절 때나 연말에 지부에서 공급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6명의 회원은 분뇨처리를 해양투기로 하는데, 고령지부에서는 비용이 상승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군에 축산분뇨공공처리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

### 툽밥·종돈 공동구입시 군에서 보조금 받아

고령지부는 환경개선 사업과 종돈갱신 사업의 일환으로 툽밥 공급과 종돈 구입시 군으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다.

환경개선 사업으로 툽밥 공급시 1만2천포



▲2002년 1월 22일 고령지부가 설립되었고, 그 해 2월 6일 지부승인을 받았다.



▲환경개선 사업으로 톱밥 공급시 1만2천포 중에서 군으로부터 50%를 보조받고 있다. 결국 회원들은 1포당 2,100원에 구입해야 하는 것을 1,050원으로 저렴하게 구입하고 있다.

중에서 군으로부터 50%를 보조받고 있다. 결국 회원들은 1포당 2,100원에 구입해야 하는 것을 1,050원으로 저렴하게 구입하고 있다.

중돈갱신 사업은 600두에 한해 회원들이 중돈 구입시 두당 10만원으로 총 6,000만원을 군에서 보조해 주고 있다. 권 지부장은 “중돈구입 보조사업이 회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회원당 10두에서 30두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A등급 출하시에는 군에서 두당 3,000원의 보조를 해주고 있다.

한편, 고령 축협은 다산육가공으로 출하하는 농가에 한해서 1년에 2번 정도 소독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지부는 군과 축협 등의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관계와 협조를 유지해 나감으로써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군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 아래 철저한 방역활동 실시

2002년 5월 구제역 발생 때 질병 차단을 위해 군 및 축협과 연계하여 철저한 방역활동을 실시하였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 고령지부 회원 1명씩, 군과 축협 직원 각각 1명씩 하여 총

3명이 톱게이트나 도로입구에서 차량 소독 등의 차단방역 활동을 하였다.

권 지부장은 “2003년 3~4월, 경북 여러 곳에서도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였지만, 고령지역은 철저한 방역활동과 함께 지역 내에 중돈장이 존재하고 있어 외부에서 분양 받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돼지콜레라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령지부 회원들은 평상시에도 개인 소독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군과 축협에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1번씩 정기 소독을 해주고 있다.

## 정기적인 월례회의와 세미나 개최, 무료시식회 행사 등 전개

고령지부에서는 매월 25일을 전후로 월례회의를 개최하며, 주로 협회 활성화 및 양돈산업 당면과제 등을 심도 있게 다루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며 정보도 교환한다. 2개월에 1번 정도는 질병과 사양 관리 등에 관한 세미나나 교육을 실시하여 회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02년 10월과 2003년 4월에는 고령 축협 앞 사거리에서 군 및 축협과 삼위일체가 되어 무



▲권중철 지부장(좌측)과 류운형 총무



▲2003년 4월에는 고령 축협 앞 사거리에서 군 및 축협과 삼위 일체가 되어 무료시식회 행사를 전개하여 돼지고기의 우수성 및 안정성을 홍보하고 양돈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를 제공하였다.



▲2002년 10월에 주산 팔각정으로 부부동반 산행을 하였다.



▲지난 5월 10일과 11일 개최된 '제주 도새기 축제'에 참가하였다.

료시식회 행사를 전개하여 돼지고기의 우수성 및 안정성을 홍보하고 양돈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를 제공하였다. 한편 2002년 10월에는 주산 팔각정으로 부부동반 산행을 하였으며, 12월 말에는 회원 단합 송년회를 개최함으로써 친목을 도모하였다.

2002년에 각기 두 회원농가에서 화재와 수해가 발생했을 때 회원들은 자기 일처럼 여겨 사후처리를 해 나가고, 구호 및 지원활동을 아

낌없이 하였으며, 지부에서는 위로금 차원으로 50만원씩을 전달하였다.

고령지부는 회원간의 결속력이 좋아 지부 행사 개최시 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노력하는 단합된 지부이다. 한편, 현재는 월 3만원의 회비와 공동구매 및 해양투기 사업 등을 통한 장려금으로 지부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

### “협회에 동참하겠다는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권중철 지부장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각종 보조 사업과 지원이 이루어질 때 회원농가가 화재나 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회원들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고령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생산에서부터 출하, 판매까지 해결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돼지를 키울 수 있는 좋은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회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위상을 제고해 나갈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이 마련되어야 협회에 동참하겠다는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으며,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지부 설립이나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후원금 등을 통해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또한 권 지부장은 “자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협회 차원에서 돈분뇨 처리 모델 제시와 TV 홍보 등의 소비촉진 사업, 다양한 요리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도**